

# 在滿詩人 詩作品 研究(Ⅳ)

- 趙鶴來의 詩를 중심으로 -

조 규 익\*

## 목 차

### I. 서론

### II. 작품세계

1. 誇張과 어설픈 형상화

2. 리얼리즘과 리리시즘의 부조화

3. 낭만적 感傷의 무절제

### III. 이미지

### IV. 시적 자아

### V. 결론

부 록 : 趙鶴來 詩作品

## I. 서론

필자는 만주에서 활약한 시인들의 시 작품을 발굴,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중인데<sup>1)</sup> 본고에서는 조학래의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그의 신원을 추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다만 『在滿朝鮮詩人集』과 『滿洲詩人集』 등에 모두 여덟편의 시를 실고 있는 점, 『滿鮮日報』에 여러 편의 시 작품을 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대의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시인이었

---

\* 人文大 國語國文科 教授

1) I (宋鐵利의 시, 『崇實語文』 8, 송실어문연구회, 1991)/II (李旭의 시, 『송실대 논문집:인문과학편』, 1992)/III (咸亨洙의 시, 『웅진어문학』 2, 웅진어문학회, 1994).

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직 당시의 국내 간행물들에서 그의 이름이나 작품을 발견한 바는 없다. 부족하긴 하나 앞의 문헌들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뒤져서 필자가 찾아낸 작품들은 20편에 가깝다. 필자가 뒤져 본 만주 간행의 문헌은 『재만조선시인집』, 『만주시인집』, 『北郷』, 『만선일보』 등이 전부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문헌으로 꼽히는 『북향』과 『만선일보』는 극히 일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문헌들을 모두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의 작품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작품에 대한 수탐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것은, 찾아낸 작품 만으로도 그의 작품 경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나머지 작품들에 대한 발굴 역시 가속화될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심리 때문이다.

확인할 수 있었던 『만선일보』는 1939년 12월부터 1940년 6월까지 대략 7개월 동안 간행된 분량이다. 그리고 『재만조선시인집』과 『만주시인집』은 모두 1942년에 간행된 시집들이다. 더구나 이 시집들에는 『만선일보』에 실렸던 작품이 재 수록된 경우도 있어,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시작품들은 30년대 후반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의 작품 제목과 수록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괴로운 詩人의 書	『만선일보』 1939. 12. 2. 2159호
2. 旅愁	『만선일보』 1939. 12. 12. 2169호
3. 郷愁	『만선일보』 1940. 2. 13. 2231호
4. 海岸地帶	『만선일보』 1940. 3. 5. 2252호
5. 候鳥	『만선일보』 1940. 3. 27. 2274호
6. 園譜	『만선일보』 1940. 4. 27. 2304호
7. 春詞	『만선일보』 1940. 4. 30. 2307호 <sup>2)</sup>
8. 憂愁	『만선일보』 1940. 5. 4. 2311호
9. 孤淚苦	『만선일보』 1940. 5. 8. 2319호 <sup>3)</sup>

- 2) 이 작품은 『재만조선시인집』에 재수록되어 있는데 양자간에는 字句상의 사소한 차이만이 보일 뿐이다.
- 3) 이 작품은 그가 처음부터 독립된 시작품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만선일보』의 『隨感 欄』에 〈孤淚苦—봄은 이러케 왔다 이러케 간다〉는 수필을 4회 分載(2316~2319호)하고 있는데, 이 시의 앞 부분은 수필 첫희의 서두에 뒷 부분은 마지막희의 끝부분에 각각 첨부되어 있다.

10. 봄밤	『만선일보』 1940. 6. 1. 2340호
11. 流域	『재만조선시인집』
12. 거리로 가는 마음	『재만조선시인집』
13. 憧憬	『재만조선시인집』
14. 街燈	『재만조선시인집』
15. 驛	『만주시인집』
16. 心紋	『만주시인집』
17. 彷徨	『만주시인집』
18. 滿洲에서	『만주시인집』

이외에 隨想인 〈處置室〉(『만선일보』 1940. 1. 26. 2213호)과 〈돈, 벗, 그 老人〉(『만선일보』 1940. 2. 1. 2219호, 2. 3. 2221호, 2. 6. 2224호)을 발표하였다.

## II. 작품세계

### 1. 誇張과 어설픈 形象화

그의 시가 전통시의 표현적 단순성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현대시로서의 자질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긴 하나 그렇다고 평균수준 정도의 매끄러운 표현이나 마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부분의 당대 시인들이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시에의 안주 아니면 표현의 왜곡을 통한 비문법성과 난해성을 현대시의 본질로 착각한 듯 하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시들을 양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평론가인 金友哲도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趙鶴來氏 — 「괴로운 詩人の 書」 괴로운 詩人の 獨白이어야 할텐데 雜꾸념이 되고 말었다. 괴로운 詩인이 괴롭다는 表情을 하는 것처럼 보기 승한 것이 업스며 또그런 일을 흔히 볼 수가 업다. 괴로우면 心身이 悲哀의 奈

4) 金友哲, 滿洲朝鮮語 詩壇과 詩人(續三), 『만선일보』 1940. 4. 29. 2306호.

落에 사라안고마는 法이다. 沈默 속에 攄물거리며 苦惱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그저 괴로웁다고만 表白하는 詩作처럼 無味한 것은 없다. 그것은  
 그러타 하고 中位에 안쳐놔도 無妨한 作品이란 것을 附記한다. 4)

다양한 소재들로부터 적절한 이미지를 추출하여 시인의 의식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해내는 것이 좋은 시라는 점은 시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조건은 김우철 뿐 아니라 현대시의 창작자나 수용자 모두의 기대지평인 것이다. 주제의 직설적 나열이나 설명 만으로 세련된 서정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서정성 자체가 고도의 미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우철은 <괴로운 詩人の 書>의 어떠한 면을 이렇게 평하고 있는가? 시작품을 들어보기로 한다.

<1>石炭냄새 窒息할사 두려운 "폐-치사"압  
 對像이 엮는 이 밤은  
 병아리인양 말 못하는 沈默의 時間이  
 찢부면서도 空然한 過去를 불너세 우련다

사슬을 찾는가!  
 묵어온 마음은 支向도 업시  
 一萬가지 傷心을 돌추고 돌추고—  
 밤은 琉璃窓에 비치운 낮빛사 지 蒼白하게 하는구나

孤獨이 彈丸처럼 쏘아오는 겨울의 이 밤  
 心琴을 울리는 明日의 生活이  
 甯쿨진 마음에 甯쿨지우나니  
 옛날은 그 무엇이엇쓰며  
 이제 또 未來는 무엇이던가?

밤은 이미 子正을 넘어

또다시 새로운 "스테인"의 彫刻에 숨갓쑤거니  
 한토막 쌀분 睡眠도 그리운  
 墓穴가튼 이 밤은!  
 머리맡 쏘각종이에  
 아! 返逆이 만든 歷史의 記錄이 비창쿠나

시인은 공간이미지와 시간이미지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상태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요령부득의 시어들을 아귀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지에 가까운 표현을 이루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1연을 보자.

石炭냄새 窒息할사 두려운——공간  
 對像이 엮는——————시간  
 말 못하는 沈默의——————시간  
 쌀부면서도 空然한 過去————시간

질식과 같은 죽음을 연상하는, 부정적 공간(폐-치사 압)은 흡사 부정적인 시간들을 잉태하였거나 잠자고 있는 그것들을 깨우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감싸고 있다. 질식할 것만 같은 공간 속에서 지각하는 다양한 시간의 모습들은 공간의 괴로운 측면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시인이 처한 고뇌의 현실은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 "병아리인양 말 못하는" 상황을 보조관념으로 끌어 온 것은 부자연스럽다. 병아리가 '말 못하는' 존재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상관물일 수도 없을 뿐더러 '병아리'가 주는 산뜻한 색감이 이 연의 무거운 분위기와 부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제 2연은 '사슬'이라는 의미 불명의 어휘를 제외한다면 특별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묵어온 마음', '傷心', '밤', '유리창에 비친 창백한 낮빛' 등은 모두 시인의 괴로운 심사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표현들이다.

제 3연 역시 부정적인 시간과 공간 인식을 전제로 한 푸념 일색이다. '겨울의 이 밤'은 "孤獨이 彈丸처럼 쏘아오는" 괴로운 현실이다. 현실을 중심으로 과거(옛

날)와 미래(明日) 역시 괴롭긴 마찬가지다.

제 4연의 “墓穴가튼 이 밤”은 제 1연의 “對像이 엮는 이 밤”을 극대화시킨 반복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이 작품은 서투른 措辭와 헤픈 영탄을 주조로 한 시인의 푸념일 뿐 서정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김우철과 같은 당대 비평가의 눈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었던 만큼, 이 시인의 수준이 보통 이상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듯 하다.

김우철은 조학래의 또 다른 시를 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趙鶴來氏---「園譜」 낚은 “필림”을 다시 鑑賞하는 것이든  
그런 印象을 가지게 한다. 「테-마」가 統一되지 못하고 場  
面 場面이 散漫하다. 雄大한 自然--- 大地의 心臟 牧場  
太古 壯한습 沃土 寶庫 金빛 太陽의 瀑布 大河 地圖---  
이런 “스케일”을 詩化하는 데는 「몬타-쥬」手法을 適用함이  
엇덜른지? 如何든 이런 詩는 表現의 誇張에 싸 지기 쉬웁  
다. 表現의 誇張이라고 해도 그 表現이 主題로 向하여 統  
一만 되면 優秀한 시를 일출 수 잇슴은 林學洙의 戰場詩  
가 證左하고 잇지만 여간내기가 아니다.<sup>5)</sup>

조학래의 〈원보〉는 주제가 통일되지 못하고 장면 연결이 산만하기 때문에 낚은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아울러 웅대한 자연을 표상하기 위하여 든 소재들을 몽타쥬 수법으로 구성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김우철은 이 작품이 웅대한 스케일을 목표로 하다가 표현의 과장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그 작품을 들기로 한다.

〈2〉새로운 極光이 무지개처럼 버터난다  
삶의 曲節은 田園에서 躍動하다  
白濁한 市井의 좀먹는 體臭를 잇고

5) 金友哲, 滿洲朝鮮語詩壇과 詩人(續七), 『만선일보』 1940. 5. 15. 2323호.

진실은 여기 蜃氣樓처럼 피어나—  
 布穀새 길—이 光明을 물고 날러온다.  
 地軸을 파헤치고 무럭무럭 구수한 흙 香氣!  
 千里萬頃 구부러진 耕地!  
 ..... 멀리—海 〇 가튼 歡呼의 喊聲이 들리는구나.  
 薰風을 한아름 마시고  
 이봄의 푸른 물결우에  
 마즈막 "노스탈자—"를 잊으라  
 또하나 細胞는 봄언덕에 부푸러오른다.  
 大地의 牧場에서 安住하려니  
 오—  
 바람에 날려 바람에 부서지는  
 旗幟를 보라  
 거기서 .....  
 太古는 土塊를 물고왔고  
 太古는 흙을 써 밀고 갔다  
 壯한 숨이 지나가고  
 살진 沃土느리지  
 寶庫는 안—옥히 展開될새  
 展望속엔 金빛 太陽이 瀑布가티 쏘다져나리지  
 情景은 너무도 탐스럽고나  
 慈愛스런 어머니의 젖줄가티  
 大河는 沃野에 한 幅에 기름인솟 흐르다.  
 이제 地圖의 한복판에 새 氣焰 솟아  
 煌煌한 黃金물결에 너는 폭은히 잠들리니  
 오너라 모—두  
 모—두 오너라.  
 원갓 農樂이 새숨결에 빗쳐져  
 蒼空에 쓴 솔개미날개처럼

輓歌 훑터지는 이쌍애로 . . .  
 이옥고 아름다운 천사는  
 우리를 마저  
 薔薇꽃 님파리가티 고은  
 曲譜를 퍼칠새시다.

제목 '園譜' 라는 생소한 어휘는 둘째 행 가운데 '田園' 과 마지막 행의 '曲譜' 를 합친 말로서 전원 즉 대자연의 하모니를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서 바라 본 대자연을 노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봄을 맞아 기지개를 켜는 대자연이 그 대상임은 틀림없는 듯 하다. 특히 "白濁한 市井의 좀먹는 體臭" 와 대자연을 대비시키고 '진실' 은 대자연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대자연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의 이미지들 모두가 규모면에서 큰 것들 뿐이다. "地軸·千里萬頃 구부러진 耕地·大河·蒼空" 등은 시인이 선택한 공간들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원초적 시간대인 '太古' 를 감지해내고 있다. 대자연의 웅대하고 평화로운 조화를 노래하고자 하였으나 김우철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장에 멈추고 말았다. 더구나 시어나 구절들 사이의 연결이 매우 거칠고, 의미적 상관 또한 긴밀하지 못하다. 그러니 주로 부각되는 것은 큰 규모 시어들 뿐이다. 순화시키지 못한 내면적 걱정을 토로하는 등 시적 형상화의 기법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은 몇몇을 제외한 당대 시인들 대부분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폐단이기도 하다. 또한 대체로 조학래 시의 특질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편린들을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긴요하지 않은 외래어나 관념어 등을 삼입하는 등 생경한 수법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적 분위기를 경직킨 점에 있다.

## 2. 리얼리즘과 리리시즘의 부조화

조학래의 시에서 현실의 모습을 찾기란 쉽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서정적으로 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의 문제를 다룬 시들이 범하기 쉬운 표현상의 粗野性을 순화시키지 못한채 액면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시적 상상력의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시의 기반



인 순박성을 단단히 갖추지도 못한 채 어설피게 도입한 현대시적 기법이 부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여기에 조학래 시의 한계성이 있다.

〈3〉마지막으로 갈라진다해서 손수건을 흔든다.

너무도 슬퍼서 눈물을 쥐어도판다.

어찌 하면 다시만날뚝 십혀서 울지안코 참기도 한다.

해당쫓치피는 나라로 간다해서 그게 당신들세는 좃소.

구진 눈송이 쏘다지는 나라로 간다해서 그게 자네들게

는 실소.

그러나 차는 당나귀처럼 덜렁거리면서 만흔구비도 잣

고 가리다.

에미네를 어느옥실할 여석으게 췌기고서는

쑥겨지고 너절한 붓싸 리를 싸들고서 도망하듯이 췌 나  
간다.

능금접이나 사이고 토시췌으로 코스물을 시츠면서

이마을 안악네들은 품파리를 췌 나간다.

서울가는 귀한 췌자식이

나룻가로 팔여가는 색주가 영업자가 모두 췌나간다.

〈후 략〉

이것은 〈驛〉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滿洲詩人集』에 실려 있다. 이 시에 나타난 내용은 離散의 현실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든 驛은 이별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재회를 기약하는 이별이기 때문에 그다지 절망스럽다거나 슬픈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는 다르다. 이 작품이 씌어진 시기의 조선은 식민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것도 식민지배의 말기에 해당하는 시점이다. 대단히 극악한 탄압이 이 민족을 내리 누르던 시기였다. 그러니 역에서 벌어지곤 하는 이별의 광경이 낭만적인 그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교

차에 버금가는, 처절하면서도 슬픈 이별이다.

이 시에서의 이별은 현실이다. 살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별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편이다. 지금 이곳보다 나은 어느 곳에 가서 삶을 이어가겠노라는 결심으로 떠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이곳과 대비되는 미래의 어느 곳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못하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작용되는 유일한 힘은 나의 의지에 反하는 외부의 압력이다. “아내를 어느 나쁜 놈에게 뺏겼다”면 이곳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귀한 딸 자식을 서울의 새주가 영업집으로 팔아버리는 일” 역시 극한상황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식민 말기 조선의 현실이었다. 시인은 이것을 시적으로 형상화 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적 언술이라기에는 너무 평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해당쫓 치피는 나라로 간다해서 그대 당신들세는 쫓소/구진 눈송이 쏘다지는 나라로 간다해서 그대 자네들게는 실소”와 같은 단도직입적 설문이 시적 함축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부분 시인의 넘치는 걱정이 정제되지 못한 시어로 분출되는 경우에 이런 웅변조의 작품들이 산출된다. 시에서의 리얼리즘이 성공하려면 리리시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에서의 리리시즘은 상당 부분 詩語와 결부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인이 서정적 조화를 지향했다면 시어의 선택과 배열에서부터 오류를 범한 셈이다. 평론가 김우철의 말대로 “『테-마』가 統一되지 못하고 場面 場面이 散漫하며 表現의 誇張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sup>6)</sup>

### 3. 낭만적 感傷의 무절제

誇張과 그것의 어설픈 형상화나 리얼리즘과 리리시즘의 부조화 등은 대부분 무절제한 감정의 노출과 연결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선행되느냐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낭만적 감상이 충만될 경우 과장법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역으로 과장법을 시적 기교로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채울만한 내용물은 낭만적 감상 이외에 달리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양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다만 낭만적 감상은 전통시

6) 주 5) 참조.

를 청산하고 현대시를 담당하기 시작한 초창기 시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전통시와 자신들의 시를 변별하기 위한 資質 줌으로 해석했던 듯 하다. 다음의 시작품을 살펴보자.

〈4〉하나 불빛도 업다.

· · · 遊園에 걸닌 水銀鏡같은.  
 恨嘆과 눈물로 얽거  
 哀訴는 자즈러지게 天涯에만 날니느뇨.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破鏡의 射面엔 밤낮 白痴만 나누나.  
 입입피 不透明한 心魂  
 海藻갓치 얼크러져  
 三十燭光 어두운빛 沈鬱속에서 너는---  
 純情일은 그어느 祖先들에  
 血痕을 呼吸함이뇨  
 새 는 임이 세월속에  
 썩싸 진 사슴이란다  
 아하--  
 거두어라 거두어라  
 어두운 내방 영창사에  
 식검언 帳幕을 거두어라  
 終始 無關한 生活의 喪失  
 피--나레엔 한줄 月光도 업다  
 悠久히  
 憂愁만 안개처럼 서리노라

제목(〈憂愁〉)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 시는 “어둠·한탄·눈물”의 이미지로

채워져 있다. 빛조차도 30초광짜리 '어두운' 빛이며 거울도 깨진 거울(破鏡)이다. 물론 뒷부분에 “거두어라 거두어라 . . . 식검언 帳幕을 거두어라”고 희망의 빛을 갈구하고는 있으나, 결국 “終始 無關한 生活의 喪失/피—나레엔 한줄 月光도 업다”고 하므로써 암흑의 부정적 한탄으로 끝맺고 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당수는 대책 없는 낭만적 感傷을 표출하고 있다.

### Ⅲ. 이미지

조학래의 시작품들은 대체로 어둡침침한 색조를 띄고 있다. <괴로운 詩人の 書>, <旅愁>, <鄉愁>, <憂愁>, <彷徨>, <孤淚苦> 등 제목 자체에 수심이나 괴로움 등이 표출되는 작품들은 물론이고, 제목의 색조와는 달리 내용 자체에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운 내용들이 시적 형상화의 묘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적절한 이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평론가 김우철이 그의 시를 평하면서 “雜 푸념이 되고 말었다”는 혹평을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음의 작품을 살펴보자.

<5>내 가슴 적은 心臟 속

感覺의 港口에 드나드는 靑春의 배 배

人生의 航路 같길이 그다지도 뱃분가?

불새 진 信號燈!

燈心이 타고난 재사가

가을바람에 훗날려

씨 저진 窓구멍으로 새어가네

남자도 가오

나도 간다고

南北으로 흐터지는 運命과 運命을

되마침 업는 生活의 아우성 속에 파무치울 제

이제 또다시 故鄉인들 그러서 무엇하리.

〈旅愁〉

이 시의 골자는 방황과 실향의 정서다. 그런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시인은 비교적 손쉬운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있다. 첫 연에서는 “(感覺의)항구 · (청춘의)배 · 人生航路”를, 둘째 연에서는 “(불서진)신호등 · (燈心이 타고 난)재”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인생의 항로에서 일정한 좌표도 상실한 채 분주하게 오락가락하는 삶을 노래한 시다. 특히 고향을 등지고 떠나 나그네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축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이 지어진 시기(1939년)가 일제의 억압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점임을 감안할 때 여기서 노래되고 있는 정서가 당대 우리 민족 공동의 정서였음을 알 수 있다. 청춘의 배, 인생 항로 등 인간의 삶을 묘사하는 보편 이미지로 시작하여 실향의 현실로 압축시킴으로써 시인의 기교가 단순치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그의 시는 어두운 색조이며, 이것은 그가 경험한 삶 자체가 어두웠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색조를 표현하기 위하여 무채색의 이미지를 끌어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 IV. 시적 자아

시적 자아는 시의 語調를 결정한다. 조학래의 시들에도 다양한 시적 자아가 등장한다. 그만큼 어조가 다양하다는 말이다. 물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작품들이 지닌 한계성은 뚜렷하다. 즉 시적 형상화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 지적을 단순화 시킨다면, 이것 역시 적절치 못한 시적 자아의 설정으로부터 기인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대체로 그는 그의 시작품들에서 감정의 절제에 실패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에 비해 적절한 자아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정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간혹 유치한 표현들이 나오는 등 치밀한 짜임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점은 그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분명한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다양한 시적 자아를 창조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다음의 시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6〉저 푸른 山 언덕

호젓한 草屋

불이

호롱불이

밤내 ㅅㅅ을그리며

촉촉히

구비치노니

안개만 실실히 흘러서 새누나

〈봄 밤〉

〈7〉그 옛날에는

수많은 호우적들이 몰려와서

불상한 백성들만 애꿎이 못살게 굴었다는 이야기가 남  
었다.

(마을에는 불을 질러놓고 糧食을 빼앗어가고 妻子는  
拉去하고 사나히 大丈夫는 죽여버리고---)

(중 략)

傳說과 詩와 風俗과 生活로 수놓고,

꿈임없이 쉬임없이 指向없이 鴨綠江 푸른 물이 흘러서  
흘렀노라.

햇님이 솟아 솟아 歲月이 흘러 흘러

天地물이 넘쳐넘쳐 鴨綠江이 흘러갈제

商船도 올어나리고 떼목 내리고,

수 많은 호우적의 그 現實도 이야기로 變해서 流域은

豐年頌이---

豐年頌이 들어 지었다.

## 〈流域〉

〈6〉에는 서정적 자아가 등장하여 푸른 언덕 위에 서 있는 호젓한 초가집을 그려내고 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경물을 그려내는 데 불과한 듯 하지만 ‘호젓한’이란 관형어가 암시하듯 이 화자는 시인의 감정 상태를 대변하는 서정적 자아임에 틀림없다. 서정적 자아의 어조는 독백인 경우가 많다. 독백을 통하여 시인의 내면적 정조가 충실히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인들은 흔히 이러한 자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7〉은 서사적 자아가 등장하고, 간간이 서정적 자아가 개입하는 경우다. 옛날 이야기로부터 冒頭를 시작하는 〈7〉은 서정적 자아의 언술 부분만을 제외하곤 대략 서사적 양상을 띤다. 호적들이 몰려와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옛 이야기는 지도를 펼치면 백두산과 장백산맥의 줄기에 숨어 있는 이름 없는 도읍의 옛 역사 바로 그것이다. 시적 자아는 “傳説과 詩와 風俗과 生活로 수 놓았다”고 하였다. 이 때 전설이나 시, 풍속이나 생활은 단순한 소재로서의 그것들이 아니다. 전설은 대표적인 서사문학으로서 설화 가운데 증거물이 남아 있는 경우의 이야기 문학이다. 그 가운데는 뜻을 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좌절된 영웅의 이야기도 있다. 그런 전설은 대략 비장한 분위기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호적들이 몰려와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식량을 빼고 처자를 잡아가고 대장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그냥 전설로 넘길 수 없는 근세의 이야기이지만, 시적 자아는 그냥 이것을 전설로 처리하였다. “꿈임 없이 쉬임 없이 指向 없이”와 “압록강 푸른 물이 흘렀다”는 것은 단순히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로만 단정할 수 없다. 이 두 표현의 외연은 끝 없이 흐르는 강물이다. 그러나 내포는 이 민족의 연면한 생명력이다. 호우적한테 강탈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 남은 이 민족의 강인한 역사를 드러낸 표현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연에 나타나 있는 바 생존이요, 생활 그 자체였다. 유역은 강가에 있는 인간의 생활 근거다. 강물이 흐르는 한 유역은 존속되기 마련이고, 강물의 길이만큼이나 유역 또한 넓고 길게 마련이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만큼 유역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주민들의 삶의 역사도 지속되기 마련이다. 그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서사적 자아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조학래의 작품들 상당수에서 서정적 성향과 서사적 성향이 혼합된 어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생애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식민 상황의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활동하던 지식인이었음이 확실한 이상, 이러한 어조가 대개 失郷의 어두운 情操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의 시구는 또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8〉〈전 략〉

젓먹이를 싸 안은 채 헛소문이 싸 들든  
내 고장을 버리고 절은 아즈머니가 온다.  
카-타를 쥐고 슬퍼서 울 것처럼 상을 씨프리고  
어느 서글픈 촌풍각쟁이들이 온다.

〈중 략〉

아사 보—, 역부, 일꾼 바람, 눈  
시그널이 온다.  
「잘가시오다」  
「잘 시수다」  
「안이 이제 오네!」  
「……………」

물론 이 시에 특정 인물들이 등장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적 자아의 서술적 연술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뒷 부분의 대화체는 극적 성향을 보여주는 서술적 묘사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학래는 시적 자아의 설정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면모를 보여준 듯 하다. 그것은 그의 시가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 미숙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작품이 좀 더 많이 발굴되면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 V. 결론

이상과 같이 일제 때 만주에서 활동하던 시인 조학래의 작품을 살펴 보았다.

『在滿朝鮮詩人集』과 『滿洲詩人集』, 『滿鮮日報』 등에 여러 편의 시 작품들이 실려 있다는 사실 이외에 그의 신원을 추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그 문헌들을 조사하여 필자는 18편의 작품을 찾아 냈다.

그의 작품들은 시적 대상의 誇張과 어설픈 형상화, 리얼리즘과 리리시즘의 부조화, 낭만적 感傷의 무절제 등 부정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성향은 같은 시대의 평론가 김우철의 비판적 논평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당대 시인들이 그렇듯 그의 시에도 어두운 색조의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사회적인 상황을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적, 서사적 자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인이 의도하는 어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은 그의 작품이 좀더 많이 찾아진다면 그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20편도 안되는 시 작품들을 가지고 한 시인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의 시 18편 가운데 10편이나 실려 있는 『만선일보』의 경우 겨우 7개월(1939.12.~1940. 6.) 동안 간행된 분량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음을 감안한다면 그가 실제로 지은 작품은 꽤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그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 부 록 : 趙鶴來 詩作品

### 1. 괴로운 詩人의 書

石炭냄새 窒息할사 두려운 “폐—치사”압  
 對像이 엮는 이 밤은  
 병아리인양 말 못하는 沈默의 時間이  
 찢부먼서도 空然한 過去를 불너세 우련다

사슬을 찾는가!

묵어온 마음은 支向도 업시.

一萬가지 傷心을 돌추고 돌추고----

밤은 瑠璃窓에 비치운 낮빛싸 지 蒼白하게 하는구나

孤獨이 彈丸처럼 쏘아오는 겨울의 이 밤

心琴을 울리는 明日의 生活이

넙쿨진 마음에 넙쿨지어나니

옛날은 그 무엇이었으며

이제 또 未來는 무엇이던가?

밤은 이미 子正을 넘어

또다시 새로운 "스테일"의 彫刻에 숨갓쑤거니

한토막 蜷분 睡眠도 그리운

墓穴가튼 이 밤은!

머리맡 쏘각종히에

아! 返逆이 만흔 歷史의 記錄이 비창구나

<1939.12.2.No.2159>

## 2. 旅 愁

내가슴 적은 心臟속

感覺의 港口에 드나드는 靑春의 배 배

人生의 航路 갈길이 그다지도 밝분가?

불셔 진 信號燈!

燈心이 타고난 재스가

가을바람에 훗날려

씨 저진 窓구멍으로 새여가네

남자도 가오  
나도 간다고  
南北으로 흐터지는 運命과 運命을  
되마침업는 生活의 아우성속에 파무치올제  
이제 또다시 故鄉인들 그려서 무엇하리.  
<1939.12.12.No.2169>

### 3. 鄉愁

첫닭이 왜치고 우렀다.  
○窓을 빗키고  
=차레상을 디리럼=  
갈노존에 풍석을 펴시면서 굶은 한숨을 쉬시든  
아버지의 말소리가 정영 들리는듯십다.

×

客窓은 流浪속에 목근罪人을 또다시  
묵거눅코  
כות사 지 셋살갓케 奮怒해두  
스물아홉時間 路程이 二十九年 가늘길가티멀어  
故鄉은 항용 안개속에만 자저든다.  
아득히 아득히---

×

오늘도 새 무든 鄉愁는 나의 化身이 되어  
故鄉山 洞口압 냇사 를 헤매기도 하고  
燈盞불 맞헤 他人가튼 아버지를 發見도 했다.  
=왔는야 갔는야=  
말업는 어머니의 病床엔

藥탕만든 순행이 우름이  
 한목음 소릿치고 너머간다.  
 눈오는밤 晝鬼과지나간 山과 쓰을---  
 狂人が티 움틀거리는 토백이들의 亂燥여!  
 餘香은 葬送曲가티 서얼씨 만  
 이 哀願은 엇씨 케들어야 올흔야?  
 = 열잇틀도 멀다는데 열두달도 안오고 잇섯나=  
 冬天에 별빛가티 간장을 에우고 처량히빛나는  
 아버지의 이슬진 눈자욱!  
 가을바람에 써는 갈새 가티 바삭바삭하는  
 憐悶의 그 소리!  
 -----정여 그소리가 들니는 듯십다.  
 (市立病院)  
 〈1940.2.13.No.2231〉

#### 4. 候鳥

바람이 분다  
 東,西,南,北-----  
 새젊은 純情의 선지피(血)  
 고옴게그려보는 마음의想思圖야  
 아---  
 歷史는 罌粟시長壽하다.  
 衆生은 모---두短命하다.  
 아직도 적은봄 연---한 하늘빛  
 눈물만케 흐르는 季節의새여---  
 입입피 피어나는 愁心그외로운 모습!  
 부출소리는 엇전지 이긋는悲鳴과도갓다.

흐르는 풀납사귀 납사귀에  
 빛치는 빗일흔 北斗星의 밤生活!  
 朔北의새벽을 悽涼케올면서 기러기는  
 간다.  
 江南나라 제비씨 들은 몰려서 오는구나

험한 봉오리를 넘고  
 風浪드센 海峽을 건너  
 오는것들  
 가는것들

아하---꼭가치 날를듯 실어도 날수는 업는  
 자자리 얘기가 송두리채 굴러단이는 廢墟  
 우슴씻 날너서 흐터지든 平和의내집터에

바람은 분다.  
 東,西,南,北-----  
 오늘도 來日도 杳明日도  
 그리고 世紀의쫓사 지도-----  
 --- (三月九日) ---  
 <1940.3.27.No.2274>

### 5. 園 譜

새로운 極光이 무지개처럼 버터난다  
 삶의曲節은 田園에서 躍動하다  
 白濁한 市井의 좀먹는 體臭를 잊고  
 진실은 여기 蜃氣樓처럼 피어나---  
 布穀새 길---이 光明을 물고 날러온다.

地軸을 파헤치고 무럭무럭 구수한 흙香氣!  
 千里萬頃 구부러진 耕地!  
 ……멀리—海〇가튼 歡呼의 喊聲이 들니는구나.  
 薰風을 한아름 마시고  
 이봄의 푸른 물결우에  
 마즈막 “노스탈자—”를 잊의라  
 또 하나 細胞는 봄언덕에 부푸러오른다.  
 大地의 心臟속  
 우리의 牧場에서 安住하려니  
 오——  
 바람에 날려 바람에 부서지는  
 旗箒을 보라  
 거기서……  
 太古는 土塊를 물고왔고  
 太古는 흙을 써 밀고 갔다  
 壯한 숨이 지나가고  
 살진 沃土느리지  
 寶庫는 안—옥히 展開될새  
 展望속엔 金빛 太陽이 瀑布가티 쏘다저나리니  
 情景은 너무도 탐스럽고나  
 慈愛스런 어머니의 젖줄가티  
 大河는 沃野에 한 幅에 기름인솟 흐르다.  
 이제 地圖의 한복판에 새 氣焰 솟아  
 煌煌한 黃金물결에 너는 폭은히 잠들리니  
 오너라 모—두  
 모—두 오너라.  
 윈갓 農樂이 새숨결에 빗쳐져  
 蒼空에 쓴 솔개미날개처럼  
 輓歌 훑터지는 이쌍에로……

이윽고 아름다운 천사는  
우리를 마저  
薔薇꽃넙파리가티 고은  
曲譜를 퍼칠새 시다.  
(1940.4.27.No.2304)

### 6. 春 詞

胡砂 훗날리는 千里平原  
思春하는 都心!  
葡萄빛 氣流어울에  
南國의 情操가 "엑소틱"한 波文을 친다.  
연두빛 베일을 쓰고  
毛○가튼 草原에 白日夢이 부두러움다.  
이 봄---  
天使의 湖心갓치 맑은 마음씨는  
白楊나무 가지마다 조으름새 다.  
"코발트" 빛 한울가에 季節의 體溫이 波動처  
香氣론 呼吸이 微風에 부서진다.  
오----  
이제는 후룩한 土香이 潮水갓치 넘치고  
넘치는 潮水 후룩한 土香속에  
절문 密語가 나뉘처럼 써 돌려니  
이 봄----  
퍼덕이는 脈搏이  
池塘에 핀 蓮꽃넙 물고 잉어처럼 소리친다.

3.29.宋에게 주는 詩

〈1940.4.30.No.2307〉 \*『재만조선시인집』에 재수록

(字句上 부분적인 차이는 있음).

## 7. 憂 愁

하나 불빛도 업다.  
 ……遊園에 걸닌 水銀鏡같은.  
 恨嘆과 눈물로 얹거  
 哀訴는 자즈러지게 天涯에만 날니느뇨.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破鏡의 射面엔 밤낮 白痴만 나누나.  
 입입피 不透明한 心魂  
 海藻갓치 얼크러져  
 三十燭光 어두운빛 沈鬱속에서 너는—  
 純情일은 그어느 祖先들에  
 血痕을 呼吸함이뇨  
 새 는 임이 세월속에  
 쓸싸 진 사슴이란다  
 아하—  
 거두어라 거두어라  
 어두운 내방 영창사에  
 식검언 帳幕을 거두어라  
 終始 無關한 生活의 喪失  
 피—나레엔 한줄 月光도 업다  
 悠久히  
 憂愁만 안개처럼 서리노라  
 〈1940.5.4.No.2311〉

## 8. 봄 밤

저 푸른 山언덕



호젓한 草屋.  
 불이  
 호롱불이  
 밤내 쌈을그리며.  
 촉촉히  
 구비치노니  
 안개만 실실히 흘러서새누나.  
 --於吉林三家子--  
 <1940.6.1.No.2340>

### 9. 流域

그 옛날에는  
 수많은 호우적들이 몰려와서  
 불상한 백성들만 애꿎이 못살게 굴었다는 이야기가 남  
 었다.  
 (마을에는 불을 질러놓고 糧食을 빼앗어가고 妻子는 拉  
 去하고 사나히 大丈夫는 죽여버리고---)

地圖를 펼치면  
 白頭山이 보이는 모퉁이 長白山系의 東쪽 邊地에  
 長白 藥水 半截溝 독골 빠두골 帽兒山---  
 谷間에 끼여서 일흠이 없고,  
 진대밭에 숨어서 일흠이 없는 邊地의 都邑.  
 甚히 高요한 流域이여---

하늘을 찌를듯이 험한山들은  
 山을불러 높이높이 구름속에 마조았어 언제나 神秘로운  
 對話가 끝날줄 몰랐노라.

傳說과 詩와 風俗과 生活로 수놓고,  
 굵임없이 쉬임없이 指向없이 鴨綠江푸른물이 흘러서 흘  
 렸노라.

햇님이 솟아 솟아 歲月이 흘러 흘러  
 天地물이 넘쳐넘쳐 鴨綠江이 흘러갈제  
 商船도 올어나리고 떼목내리고,  
 수많은 호우적의 그現實도 이야기로 變해서 流域은 豐  
 年頌이—  
 豐年頌이 들려 지었다.

〈『在滿朝鮮詩人集』 소재, 吳養鎬, 『韓國文學과 間島』, pp.288~289.〉

#### 10.거리로 가는 마음

목아지에다 뺨안 木메린스 旗발을달고  
 季節마다 化粧하는 빨당의 거리로 간다.

칼피스 쉼그런 呼吸속에  
 또하나 다른 太陽이 떠오르는 明朗한 明朗한거리

微風이 흔들거리는 街路樹……아까사  
 숲으지 않은 그림자 밑으로  
 보안 샘물 줄기를 찾아서—.

가다가 살다가 나는 금붕어가 되겠다  
 나는 眞珠가 되겠다  
 나는 珊瑚가 되겠다

마지막엔 白鶴이되어서

오래 오래 살수잇는 그런 白鶴이되여서  
 또하나 다른 太陽의 明朗한 빛속으로 날개치면서 날러  
 다니겠다  
 날개치면서 오래오래 나러 다니겠다.  
 〈『在滿朝鮮詩人集』 소재, 吳養鎬, 『韓國文學과 間島』, p.290.〉

## II. 憧憬

光明을 못보는 生命體의 실없는 푸념은 많이란다.  
 험벗고 굶어서하는 삶은 소리는 더욱이많이란다.  
 하늘이 뭉어져도 닿지못할 물결속같은 빛없는곳---  
 꼬리를 치렁치렁 흔들거리면서  
 珊瑚林속을 헤치고 흘러가는 海藻---얘기많은 친구들아  
 그런곳 저런곳 가리지않코 海藻같이 浪漫하고 싶다는  
 말이다.

港口는 너무도 距離가멀어서 지루하여도 좋다  
 空氣는 한참 隱花가루 흐터지는 꽃보라속에서  
 별이뜨고 달이흐르고---  
 물 개고리우는 이슬진 歷史의 밤  
 차거운 寢臺우에 맺는 옛꿈이 좋다.

언제든지 感覺은 날싸지 않아도 좋다.  
 반과처럼 燐光이 서리지 않아도  
 얘기많은 친구들아 ---  
 미상불 그대들은 어진 動物일테니  
 蘭草피는 이故鄉에서 永遠이 어진動物이 되어도 좋다.

가을날 철늦인 코스모스 꽃송이는

박명한 버얼--나비를 그리웁게 불러드린다  
 그러나 그것은 어질고 眞實함이기에 좋다.  
 眞實을 말하는 凋落은 춤들이기에  
 춤의 共鳴이기에  
 나는 끝없이 憧憬하노라--.  
 <『在滿朝鮮詩人集』 소재, 吳養鎬, 『韓國文學과 問島』, pp.291~292>

## 12. 街 燈

밤만되면 열두층계 층계를 올라와서  
 턱을고이고 수없이 뿌려있는 거리의 불을 바라본다.

밤마다 불들은 까놓은 병아리색기들처럼 조잘대었다.  
 조잘대는 불가에서는 빗빛이 달러가는 살림사리들이 시  
 침을 똑따고  
 쉬어도 갔다.  
 그런데 이야기같은 세상모--든 사연들은 흐터지는 셈  
 인지 뭉여드는 셈인지 알수없다.

골을들면 천번을봐도 만번을봐도 거저그런한올이 널려  
 있을뿐 내려다보면 검어침침한 빛뿐으로 별판우에는 바  
 람까지 잔모양인데 위선 무수한 불빛들이요  
 그다음에는 사랑이요 춤이요 울음이요 싸흠질이요  
 하루사리와 모기떼와 빈대와 파리와 심지어 이슬먹음  
 은 똑거비 노래까지  
 그모--든것들이 한시도 쉴새없이 들복는팜이다  
 --내하는데 네뭇하겠니 네가하는데 내뭇하겠니 하면서  
 들석들석 하는것처럼--.

달이뜨는 밤이든지 달이없는 밤이든지 비 모지나 눈이  
 오거나 조금도 상관할게없이병아리 같은 조잘대는 등불  
 가에서 번잔을 피우면서 언제까지든지 거저 그멋대로  
 요란스레 뒤범석 할것이 아닌가---.  
 내가 잠을자다가도 이쪽저쪽 도라누어 보는것같은 그  
 런 욕심과 또는 그러지않어서는 않될 본심으로---.  
 〈『在滿朝鮮詩人集』 소재, 吳養鎬, 『韓國文學과 間島』, pp.293~294〉

### 13. 驛

마즈막으로 갈라진다해서 손수건을 흔든다.  
 너무도 슬퍼서 눈물을 쥐어도판다.  
 어찌 하면 다시만날뜻십혀서 울지안코 참기도 한다.

해당쫓치피는 나라로 간다해서 그게 당신들세는 좃소.  
 구진 눈송이 쏘다지는 나라로 간다해서 그게 자네들게  
 는 실소.  
 그러나 차는 당나귀처럼 덜렁거리면서 만흔구비도 잣고  
 가리다.

에미네를 어느육실할 여석으게 싹기고서는  
 썩겨지고 너절한 붓싸 리를 싸들고서 도망하듯이 써 나간다.  
 능금접이나 사이고 토시씩으로 코스물을 시츠면서  
 이마을 안악 네들은 품파리를 써 나간다.  
 서울가는 귀한 쌀자식이  
 나룻가로 팔여가는 색주가 영업자가 모두 써 나간다.

두셋오리 간장물에 써 워노흔 그눔에 국수가 그것케도  
 맛조앗쇼.

어느 도야지 살문물에 풀어는 장국밥이 그다지도 구수  
했소.

두루마기 깃에서 휘파람소리나게 거러도  
아모래도 당신네들 입술에는 당초가루가 붓터습니다.

씨 나가는 고통이 온다.  
도라오는 시그널이 씨 러진다.

젓먹이를 씨 안은채 헛소문이 씨 들든  
내고장을버리고 절문아즈머니가 온다.  
키-타를 쥐고 슬퍼서 울것처럼 상을 씨 프리고  
어느 서글픈 촌풍각쟁이들이 온다.  
어젯밤 링에서 어더마즌 샐투쟁이들이 시퍼런 싹을 만지  
면서 도라온다  
버리려든 슬픔은 차라리 우서버리면서도 그래도 다시  
도라가고 십혀서  
조마조마하게 모도들 차저온다  
아직도 갓쓴 상투쟁이 할아버지  
어느 먼--드메에 시집갓든 둘째 딸이 모--두 도라온다.

아싸 보--역부, 일꾼 바람, 눈

시그널이 온다.

「잘가시오다」

「잘시수다」

「안이 이제오네!」

「.....」

===== 八,十二,咸鏡線旅路에서 =====

〈『滿洲詩人集』, 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 1942, 9, pp.30~32〉

## 14. 心 紋

바람에 불리워서 바람에 불리워서  
 아모런 나무가지에라도 안저보았스면 좃꼈다.  
 茶褐色 나무又点에 안저서  
 비마즌 가마귀갓치 설지라도  
 落葉만 지지 말었스면 좃꼈다.  
 그러면 나는 이季節의 勝利를 되는대로 宣傳하며  
 입이 아푸도록 휘파람이라도 불겠다.  
 그러나 그새 나는 勝利한 騎士의 誇張한  
 心理가 안니어도 좃타.  
 無智한 物體라도 좃타.  
 光明이 머러지면 그저 검은 存在요  
 光明이 밀러들면 스산하게 을쓰냉한 動物이라도 무관하다.  
 나는 그것으로 滿足하리라  
 沈默하고 意識的으로 늘거은 靈의 化身이기에  
 바람이 불면 불리워갈것갓튼 四肢를가졌지만  
 햇빛만 내려쬐이면 싹싹그라들것갓튼 얼굴에주름살이지만  
 그러나 岩石갓튼 運命에 살아왔길내  
 오늘은 北西風이 불어서 눈보라쳐도  
 來日은 東南風이 불어서 草花가 滿發한대도  
 나는 놀래지 안흐리라.  
 놀래지 안흐리라.

———— 七,九,於京城 ————

〈『滿洲詩人集』,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1942,9,pp.33~34〉

## 15. 彷徨

언제 부터 자랐느냐.

그날분하늘 그말근 바람에  
 가지와.  
 시루에트.  
 맘대로 자라 맘대로 버더서  
 맘대로 얼킨  
 두셋 냄새가 종사릴 매달고  
 애달비 써는 가지에  
 안테나 라도 걸어다오.  
 아무나 말이라도 올려를 오게.  
 바람이 지내가면  
 한사코 올기만하는 가지사히로  
 새파--란 하늘에 쏘각쏘각 부서졌다.  
 ─── 八,二,長白에게 ───  
 <『滿洲詩人集』,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1942,9,p.35>

#### 16. 滿洲에서 (獻詩)

가슴은 샛발간 장미로 얼켜  
 낱히 질가 두려워 대견히도 간직합니다

언덕은 숨고  
 싸 작나무 바람잔 별판  
 써 난대서 손수건 흔드는 당신들이어  
 고향도 집도 모두 버리엇습니다.

언제든지 고풍고 아름다운  
 장미꽃 송이를 안고  
 먼-- 동산으로  
 시들지 않는 세월을 차저왔습니다.



당신들이 항용 조와하고  
그리워 하시든……

———— 九,二 ————

〈『滿洲詩人集』,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1942,9,p.36〉

17. 孤淚苦

넙피는 街路樹 그늘진 鋪道에서  
洞穴가튼 내 宿舍 돌아가는 밤길  
千里나뉘얏 멀고 萬斤인뉘얏 무거워  
街燈 밝은뉘얏 등썩에 저러드네

四海를 집삼아  
割據의 英雄은 못되여도  
내마음 내肉體를  
나로서 信奉해  
아하—  
길지 못한 一生 獨白을 구하다.  
靑年은 쏘한번 鐵拳을 휘두른다.

1940.5.8.No.2316,1940.5.11.No.2319) 7)

18. 海岸地帶

“넙은 바다를것너갓다”  
고등(汽笛)처럼 설새 갓쏘……  
넙이 소역히

7) 이 작품은 그가 처음부터 독립된 시작품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만선일보의 『隨感』欄에 〈孤淚苦-- 봄은 이러케 왔다 이러케 간다〉는 수필을 4회 分載 (No.2316~2319)하고 있는데, 이 시의 앞 부분은 수필 첫회의 서두에 뒷 부분은 마지막회의 끝부분에 첨부되어 있다.

간길은 이런마음갓치  
 묵어운벼래(崖)에 쇠악 막혔다  
 퍼얼--- 퍼얼---  
 넘나드는 갈매기 깃써 존우름 멀---리  
 문혀저간 안타싸 운 落心아  
 모래알물고 찬물길만 애쓰는 波濤아  
 엇써 먼 썩리쳐도 달려보는 未練갓흠인뇨?  
 포기포기 孤獨 송이송이 피나  
 검은바다 검은마음 검은바다야 참아 못참아  
 쏘다시 본 고 적은발싸 죽  
 아하-- 님은 바다를 건너갔다  
 "문학청년"  
 한줄아름다운 詩를 生命의로알고  
 靑年은 거기 安畚의집을세웠다  
 외포기 海棠花 香氣어려 處女가  
 올셋만갓흔 집을  
 港口보다는 漁夫들의 노래가 좃타면  
 여원손(手)이 쓰는 詩가 쏘더조앗소.....  
 春情은 海潮갓치 풀을쌔 로 푸른詩였다  
 이슬진 展望이우름고인두는  
 한曲節 가느다란바람쏘리『뽕오른』갓태.....  
 목이 말을쌔 도 靑年은詩를 썼다  
 하늘을 보면울것만갓흔  
 바다를 보면 죽소만심흔  
 사랑이離別처럼 그런桃花色悲觀이 만었다.(2,21 밤)  
 <1940.3.5.2252>

## Abstract

### A Study on the Poet Cho Hak Rae and his Poems

Cho, Kyu-ick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oet Cho Hak Rae and his poems, who took an active part in Manchuria during the colonial domination by Japan.

Until now his identity has not become known. But some poems that he made are found in some anthologies published in Manchuria at that time. I found out the total 18 poems through the books. His poems have a negative propensity, that is, the exaggeration and clumsy expression about poetic objects, the disharmony between realism and lyricism, the intemperance of romantic sentiment, and the like. Also this propensity had already been confirmed in the critical comment of the critic Kim Woo Chol.

A dark color tone's image forms the main mood in his works as the other poets in those days. I think that the primary factor of the phenomenon is the social situation. Nevertheless he has successfully made his original tone by utilizing lyrical 'I', narrative 'I', and the like.

If his poems could be found out more, this characteristic can be at work as the primary factor changing the negative evaluation about his poems.

As a matter of fact I suppose that his real poems far outnumber the 18 poems in this study. Although his works are not prominent in view of literary principal, we cannot deny that they have some value in Korean literary history. It is one of our problems that we insert his poems in Korean literary history.